2011년 제39호

강대상가 소식지

Why not Change the World?

희망사진관과 사진동아리 VAM의'포항시 희망나눔
작은 손길과 관심에서 피어나는 기적

한동인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말입니다..
삶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

한동소식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동나눔간증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독도 방문기
독도, 한국을 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 35 : 1

The wilderness and the wasteland shall be glad for them,
An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as the rose;-Isaiah 35:1

갈대상자 소식지 2011 제39호

발행처_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갈대상자소식지 전자우편_letters@handong.edu

기획 및 디자인_김민정, 김철민

글_박성진, 강예슬, 이용복

일러스트_최혜진

사진_이용복

한동소식

후원자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04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동나눔간증 06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독도 방문기 독도, 한국을 열다! (Dokdo, the gateway of Korea) 08

외국인 교수님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09

한동인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말입니다.. 12

삶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 15

한동과 세상을 이어주는 '최영달 아저씨' 17

로뎀관 층섬김이들의 알콩달콩 이야기 19

한동대학교, 나의 사랑하는 모교에 첫 월급을 드립니다. 21

미주동부지역의 한동인, "언제나 그리운 나의 한동" 23

한동을 응원하는 열성'팬' 학부모기도회 25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문경 헤브론교회 27

한동의 기도소리 29

Why not Change the World?

32 희망사진관과 사진동아리 VAM의 '포항시 희망나눔

34 작은 손길과 관심에서 피어나는 기적

36 세상을 품는 한동 국제기업가정신 훈련프로그램

38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40 할아버지, 할머니!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한동 러브하우스

후원자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람이 제법 쌀쌀했던 지난 해 11월 중순, 올네이션스홀 뒤편에 있는 '푸른동산' 에서는 무 뽑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파른 산언덕에 펼쳐진 '푸른동산'은 약 3,000평 규모로 학교의 건물 외 유휴지를 개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푸른동산은 재학생에게 Work Duty 등 근로 일터를 제공하여 흙의 정직성과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재배된 무는 한동대학교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보내집니다.

4월부터 경지정리와 흙 고르기 작업을 시작으로 8월까지 비료살포와 이랑작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올 여름을 지나며 수확량이 적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산언덕을 따라 펼쳐진 밭이 햇볕을 잘 쬐어서 그런지 이전과 수확량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배된 무는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겨 택배차량에 실렸습

니다. 수확량이 부족하여 한동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에게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무밭을 일구면서, 무를 상자에 담으면서 지금의 한동이 있기까지 모든 후원자와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후원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수확한 무의 물량이 부족하여 보내드리지 못한 후원자들께는 한동로고송 등 한동인이 직접 만든 곡으로 제작된 '청년묵상' 음악CD를 보내드립니다.

2010학년도 신입생 한동나눔 간증 공모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은 학부모님의 귀한 뜻에 따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동에 오기까지의 간증을 나누고, 선별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새내기들의 간증문이 모아졌고, 그 중 선별된 가슴 시리고 감동적인 6개의 간증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한동에 오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장 3절–4절

'홀로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댈 것이라 결단을 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 기댈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지훈 학생의 글 중에서…
(한동나눔 공모전 대상 수상)

(중략)

그 기자는 용인의 어느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유독가스로 부상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쓰러지듯 주저앉으셨다. 그 용인의 고시원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고시원이었다. (중략)

어렵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겐 어머니가 두 분이다. 한 분은 내가 10살 때 암으로 고생하시다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충격으로 어린 나이에 나는 내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신실하신 어머니 한 분을 더 주셨다.

(중략)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반 중학교가 아닌 꿈의 학교로 인도하신 것도 한동대학교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캐나다 대신 필리핀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내게 비전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원하지 않았던 방화 사건도, 수시의 고배들도 다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확신한다.

(중략)

원문과 다른 5편의 간증문은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 '한동이야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okdo, the gateway of Korea)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독도, 한국을 열다!

2010년 11월 5, 6일, 2명의 한국 학생과 미국, 재미교포 2세, 카자흐스탄(고려인 4.5세), 우즈베키스탄, 시에라리온에서 온 5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독도는 한국에 오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곳이고, 한국에 와서 듣게 되더라도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동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알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그 사실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독도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를 여행하는 동안 일본에 쓴 편지들을 바다에 띄워 보내고, "독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안아 드립니다.(프리허그 free hug)"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프리허그는 독도 문제로 인해 지쳐있는 한국인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한 외국인 학생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는데, 진심은 전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동에 돌아와서도 한동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Global Culture Festival(국제적 문화 축제) 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동 안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증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도가 왜 한국의 땅인지, 국제적인 독도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UCC(동영상) 제작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 지난 해 여름, 독도가 일본 방위백서에 또 다시 일본 땅으로 표기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박담(07, 법학부, 스티븐 스트롬벡 교수팀 팀장) 학우가 한동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라도 국제사회에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독도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을 위해,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면서 독도 문제의 뜨거움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젊음의 때부터 기도하고 행동하는 소망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담(07, 법학부, 스티븐 스트롬벡 교수님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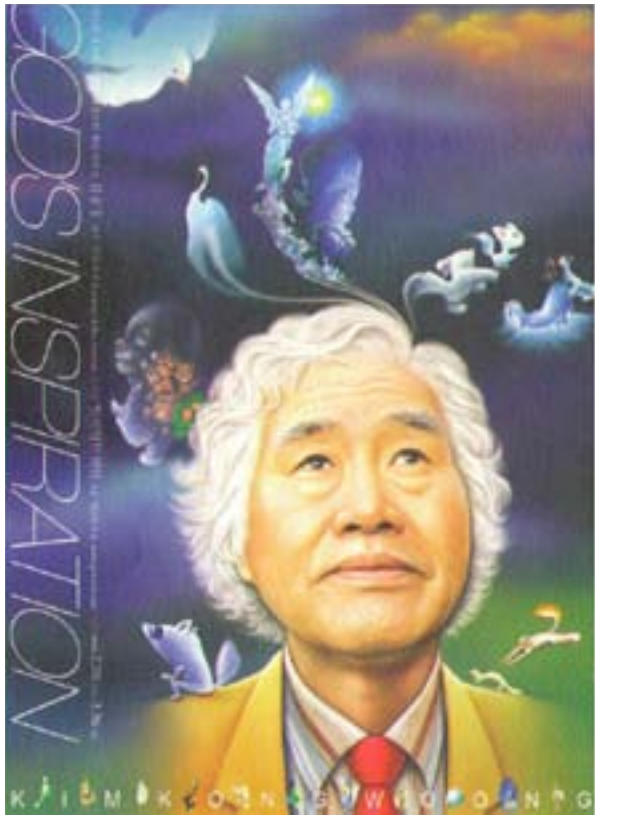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한동의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담 학우의 소망대로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아야 할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교수님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한동대학교의 본관인 현동홀 앞에 외국인 교수를 위한 새로운 숙소, 'International Faculty House 9동' 이 들어섰습니다. 한동을 사랑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고국을 떠나 이곳 한동대학교에 오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외국인 교수님들께 새 숙소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29일, 재정적인으로 큰 도움을 주신 교회의 목사님들과 후원자들을 모시고 준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김영길 총장님은 한동이 국제적인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외국인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내빈으로 오신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한동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된 외국인 교수님들과 그 가족들은 'Thank you Handong! We love God' s University' 라는 현수막을 걸어 한동인들과 여러 후원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새 숙소에서 생활하게 될 여러 교수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International Faculty House 9동은 6층 건물로, 원룸 8실, 25평형 8실, 그리고 대가족을 위한 큰 평수 2실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말입니다..

한동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1967년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과, 그에 따라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할 것을 예측하고 1979년부터는 디자이너에서 광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변신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측이 잘 맞아 떨어져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의 능력자' 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추앙 받으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1997년, 한동대학교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신경성 혈압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터라 "5시간 걸리는 포항에 강의를 나가면 왕복 10시간이니. 하루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술학원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선진국 교육법을 연구하여 '드로잉 교육법'을 개발해 내었고, 이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나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십 여 년이 지난 2010년 입시에 타 대학에서 한동의 드로잉 교육법을 도입하여 실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드로잉 교육법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라 이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에서의 첫 학기, 그리고 현재..

1997년 1학기부터 한동과 인연을 맺은 후, 저에게 나타난 믿기지 않는 사실은 점점 빨라지던 혈압주기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인도하심이었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한동에서 강의를 하고자 한 다짐은 첫 시간에 만났던 학생들의 진지한 자세와 예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대학에서도 10년 간 강의를 해 왔지만 한동의 학생들은 별종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강의 시간을 곱씹어보니 '이러한 학생들이라면 그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고 싶다' 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2007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이 되었는데 특별한 은혜로 3년 반을 더 가르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허탈과 쓸쓸함,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학교 주변에 심었던 가느다란 벚나무와 느티나무들이 지금은 아름드리로 성장한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한동을 떠난다는 것이 순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동에서의 일 중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7년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졸업생들이 모금운동(총예산 천 오백만 원)을 하여 '서울 인사아트 갤러리 100평' 에서 개인 전시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타 학교 교수들이나 세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동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96, 97, 98학번 3명의 학생들과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구정과 추석에 만나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도 어느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자랑스럽고 보람을 갖게 합니다. 그 동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을 떠나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정년이 되면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동에서는 총장님의 배려로 3년 반을 연장해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인성, 즉 예절문제에 있어 이전 선배들에 비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세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도 "한동 학생들은 인사를 잘 한다" 는 칭찬을 받지만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아닌,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에게는 잘 실천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안에서는 부족해도 학교를 방문하시는 외부 손님들에게 더 깍듯한 인사를 하는 것이 한동만의 '다름' 이 아닐까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한동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들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동을 향한 사랑을 담아..

산업정보디자인 학부 교수였던 김공웅

삶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

'내가 5분 더 공부하면 5천 명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명예보다 굶주리는 자의 아픔을, 자신의 풍요보다 농민들의 가난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와 맞서 싸우며 일편단심 옥수수 사랑을 전파하는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님이십니다.

김박사님은 대학 시절 미국정부 장학생으로 하와이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도 잘 살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개발해야 된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공부한 김박사님은 3년 3개월 만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3년 8월,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부푼 꿈을 가슴에 안고 달려왔지만 김박사님의 한국에서의 시작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무엇보다 '불가능하다' ,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 는 주변의 시선이 박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사님은 전 세계의 배고픔을 줄이고 가난한 농민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신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옥수수 품종개량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덕분에 당시 옥수수 생산량이 3배가 늘어 농가소득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옥수수 품종개량에 성공한 뒤, 1999년 박사님은 UN의 요청으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박사님은 17년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던 아프리카 주민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도 옥수수 기술을 전수해주어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작년 9월, 한동대 석좌교수로 오셨습니다.

박사님은 사무실에 계실 때에도 농장 작업복을 벗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언제든 옥수수밭으로 달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사님. 박사님은 우리에게 Why not change the worl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온 삶으로 말입니다.

한동과 세상을 이어주는 최영달 아저씨

"95학번에 엄OO의 남자친구가 해병대 소령인데… 애가 선천적으로 약했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 "96학번 애 한 명은 삼성전자도 가고, 또 박OO는 카이스트 석사과정 밟고 있는데… 지금쯤 학위는 취득했을까…" 최영달 버스기사님은 졸업한 학생들의 안부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다가 이내 말끝을 흐리시며 그리운 표정을 짓습니다. 1995년, 학교버스 한 대만이 한동과 세상을 이어주던 시절부터 학생들과 함께 해 오신 최영달 기사님은 한동의 유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며 서로 건네는 인사 한 마디에 정이 들어 졸업을 한 후에도 일부러 최영달 기사님을 찾아오는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올해 버스노선이 변경되면서 이전 노선에 비해 많아진 신호등과 넓어진 도로 때문에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서 학생의 안전이 걱정이라는 기사님. 2인 1조가 되어 하루 종일 운전을 한다는 기사님은 "(버스운전이)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나마 주간에는 조금 낫지" 하며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아저씨 피곤하시죠" 하며 건네주는 껌 하나, 커피 한 캔에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참 순수해. 때 묻지 않은 모습이 너무 좋아."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이 너무 고맙고 항상 밝게 인사하며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학생들의 마음 씀씀이에 오히려 자신이 학생들한테 배운다고 하십니다.

최영달 기사님은 한동대 축구 동아리 회원이기도 합니다. 교대 시간 사이에 조원철 교수님(산업정보디자인학부)을 비롯 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나 같은 아저씨와 함께 공을 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내가 그 학생들과 비교하면 실력이 되나? 내 나이 5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랑 노는 것이 즐거워" 라며 해맑게 웃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와 함께 오늘도 버스는 달립니다.

로뎀관 층섬김이들의 알콩달콩 이야기

한동대학교 생활관에는 각 호관 별로 간사님들과, 동섬김이(동장), 그리고 층섬김이(층장)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여학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로뎀관의 층섬김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뎀관은 6층으로 되어 있어, 각 층을 담당하는 여섯 명의 층섬김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학기 동안 매일 밤 10시 반에 모여 점호를 준비하고, 11시에 점호를 하여 이에 따른 벌점을 주는 것뿐 아니라 로뎀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층섬김이는 매 학기 말, 자치회를 통해 모집됩니다. 층섬김이를 지원하는 학우들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한동을 졸업하기 전에 한 번 해보고 싶어 지원한 학우, 생활관 내에서의 교제가 좋아 몇 학기째 지속하고 있는 학우, 호기심으로 지원한 학우 등 각자 지원 동기는 다르지만, 한 곳에 모이게 된 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일주일전 미리 학교로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각 층을 담당하기 위해 생활관의 수칙을 외우고, 이번 학기에 어떤 이벤트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매일 밤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더욱 깊어갑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며칠 뒤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하다' 고 말하곤 합니다.

층섬김이 간의 인연 외에도 간사님과의 인연 또한 층섬김이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로뎀관에는 1, 2, 3층을 담당하는 김선미 간사님과 4, 5, 6층을 담당하는 조하연 간사님이 계시는데, 로뎀관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간사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층섬김이들에게는 매일의 만남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10년 2학기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로뎀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방 대항으로 제기차기를 해서 추석 선물 세트를 나눠 가졌던 '추석 맞이 효도 이벤트', 빵과 피자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벤트, 중간고사 파이팅 이벤트, 그리고 학기말에 한 학기 동안 벌점을 받지 않은 학우들에게 주는 선물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로뎀관이 더 환해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매일 이야기 꽃을 피웠던 층섬김이들은 이제 아쉬움을 갖고 헤어지게 됩니다. 한동안은 매일 밤 10시 반이 되면 서로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교에 첫 월급을 드립니다.

2008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할 때 95, 96학번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사모님이 쓰신 '갈대상자' 책에 등장하는 그 1기, 2기 선배들을 말입니다. 탁월한 실력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늘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한동인의 특별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0년 9월에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해왔기에, 이 월급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모교(한동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학부시절 때 전공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재정문제로 컴퓨터실에 설치되지 못했던 경험이 기억났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후배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첫 월급을 더 기쁘게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늘 제가 한동인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졸업을 하고 난 지금 한동에서의 배움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4년 동안의 한동 생활에서 정립하게 된 '기독교 세계관' 과 '정직' 훈련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앞으로도 저를 지켜줄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사랑, 겸손, 정직, 섬김의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제 가슴 속, 그리고 후배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져,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 마태복음 5:16

03학번 상담사회복지학부 이정은 드림

미주동부지역의 한동인, "언제나 그리운 나의 한동"

세계의 중심지라 일컫는 뉴욕과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DC, 그리고 학술의 중심지 보스톤 등이 위치한 미주 동부지역. 한동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직업을 갖고 새로이 둥지를 튼 졸업생들부터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하는 학우들,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밟거나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한 학생까지 다양한 한동인들이 미주 동부지역 곳곳에서 저마다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지생활이 만만치 않기에 한동인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합니다. 특히 뉴욕 지역에서는 매달 한 번씩 모여 한동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종종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근황을 챙깁니다. 한 주를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고되게 보내며 심신이 힘들어도, 한동인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 마음에 평안을 되찾곤 합니다.

한동대 미동부동문회(HAEU, Handong Alumni of Eastern US)는 지난 2009년 12월 26일, 첫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동인들의 모임이 자주 있어왔지만, 당시 송년회는 동부지역의 한동인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부지역의 한동인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 열린 선교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동부지역을 방문했던 국제어문학부 마민호 교수님,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에서 여행 온 학우들, 그리고 한동대 출신인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온 한동 주니어들까지, 40여명의 한동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11월 21일에도 제2회 송년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특별히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UNAI) 출범식 참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셨던 김영길 총장님과 김영애 사모님께서 동참해 주시어 미동부지역의 한동인들을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2월 26일에도 뉴욕 동문들은 식사를 하며 연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반대로 뉴욕으로 새로이 오는 한동인들이 있어 로테이션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한동' 이라는 이름 하나가 이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미동부지역의 한동인들은 언제나 한동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힘에 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미국생활이지만, 가슴에 새겨진 한동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곤 합니다. 미국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동을 응원하는 열성'팬' 학부모기도회

개교 후 한동은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나침반 하나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96년도부터 시작된 기도 모임에서의 학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는 지금도 한동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지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부모기도회는 회장단과 23명의 부회장, 그리고 전국에 걸쳐 7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 휴학생 학부모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열정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기도회는 기도뿐 아니라 실천과 헌신으로 매년 한동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사로는 매년 입학식 때 신입생학부모총회를 시작으로 3월 전국 학부모총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가 주관하는 입학설명회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함께 해 주십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자체 회비로 1년에 두 차례 장학금수여 및 급식 후원, 학생활동 보조금, 선교축제, 창문축제에 후원을 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나 부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섬기기와 스승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한동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 양육의 장이며 기도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한동대학이 바로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한동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학교를 위해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한동의 부모는 당신의 아들, 딸이 한동이라는 아름다운 대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뒤에서 중보하고 후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또한 학부모기도회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의무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는 한동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동역자 아론과 훌 같이 학부모기도회는 한동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한동의 아론과 훌입니다.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문경 헤브론교회

발전협력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경에 있는 헤브론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신 윤상훈 목사님은 학생 한 명에게 1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을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지만 그저 감사 인사만 드리고 송금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헤브론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한동을 좀더 알리고 직접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대외협력처 장규열 처장님과 발전협력팀의 권상석 팀장님, 학생지원팀의 이경태 팀장님이 헤브론교회로 향했습니다.

2010년 10월 6일, 도착한 헤브론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이 모인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헤브론교회 교인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 한동대학교 10학번으로 입학한 문국현 학생(GLS)은 한동에서의 생활을 어르신들께 설명해드렸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문국현 학생을 바라보는 헤브론교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 행복은 헤브론교회 출신 문국현 학생이 당신들의 기도에 힘입어 한동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뿌듯함과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장학금은 갑작스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콩고 출신의 외국인 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학생은 부모님의 지원이 가능하여 저개발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운송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운송트럭들이 반군에게 빼앗기면서 1년째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헤브론교회 어르신들의 따뜻한 장학금은 콩고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헤브론교회 측 목사님의 첫 연락에서부터 콩고 출신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동의 기도소리

깜깜한 새벽

채플 별관에서 새어 나온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요한 이 때에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아침의 첫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내 몸과 내 뜻이 하나님 안에 속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체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후 점심시간

하루의 중간에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동의 중심에서, 선배들의 비전 위에서
한동과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중보합니다.

끝시간

지나온 하루를 정리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한동의 모든 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길.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희망사진관과 사진동아리 VAM의 '포항시 희망나눔'

한동대가 개교할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동아리 'VAM'. 스스로를 배머(VAMer)라고 일컫는 회원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공부하고, 정기전시회를 열기도 하지만 더 특별한 방법으로 포항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 학기마다 포항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VAM은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마지막' 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포항시 곳곳의 양로원을 찾아가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를 2001년 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포항시 죽도동에 위치한 '희망칼라사진관' 입니다. 사진관 이름이 그러하듯 희망사진관 삼촌들께서는 언제나 희망 가득한 미소로 VAM을 맞

이해주십니다.

희망사진관은 VAM이 영정사진 촬영봉사를 하는 날이면 촬영에 필요한 조명과 배경지를 무료로 대여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VAM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정해서 인화한 다음 예쁜 액자에 넣어 바로 사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잘 찍어가지 못해도 삼촌들의 마술 같은 보정의 손길로 영정사진은 멋들어지게 완성됩니다.

이렇게 영정사진을 보정하고 인화해서 액자에 넣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희망사진관은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VAM의 사회봉사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 학생들에게 필름현상비를 특별할인해주기도 합니다.

"한동대 사진동아리와 손 잡고 영정사진 봉사를 도운 지 어느새 8~9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98, 99 학번 학생들부터 병아리 같은 10학번 학생들까지 한 명 한 명이 다 저희들 조카 같아요. 학생들이 노인들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정사진을 촬영한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영광이죠."

포항시의 웬만한 양로원을 모두 방문한 VAM은 앞으로 포항시에 위치한 교회로 그 범위와 대상을 넓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VAM의 전통이 되어버린 영정사진 촬영봉사. 그리고 그 전통을 함께해 온 희망사진관. 이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포항 곳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길 '희망' 합니다.

작은 손길과 관심에서 피어나는 기적

불우한 이웃에게 전하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배고픈 친구와 함께 나누는 음식,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소중한 이의 조언 한마디. 누구나 한 번씩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나 공동체가 변화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변화는 작은 섬김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003년 겨울, 정희석, 박종훈, 조성환 동문은 당시 총학생회가 개최한 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공모전 '내가 만드는 한동' 에 참가하여 대상과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상금이 학교의 팀제도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며 십일조를 제외한 90만원을 당시 팀교수님이었던 국제어문학부 박혜경 교수님에게 건넸습니다. 박혜경 교수님은 이를 계기로 각 팀마다 한 학기 동안 10만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적의 10만원 프로젝트' 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101개 팀이 1년에 한 번씩 수행하는 팀제도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 팀에 주어지는 것은 팀원 30명의 손과 마음, 4개월 남짓한 시간, 그리고 10만원.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미션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고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10만원 프로젝트는 사랑의 식권함 설치, 사랑의 집 짓기 및 독거 할아버지를 위한 봉사활동, 학교 경비아저씨 섬기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 전파 및 편지쓰기 등 한동과 포항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 프로젝트의 모티프가 된 것은 2001년 캘리포니아주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Coast Hills Community Church)에서 시작된 '하늘나라 프로젝트' 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벨레시 목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원자 100명에게 각각 100달러씩을 나눠주며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 돈을 투자하되 천국을 만드는 데에만 쓸 것 ▲90일이 지난 후 자신의 경험담을 전 교인 앞에서 말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지원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100달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면서 스스로의 상처도 치유 받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100달러의 사용처 결정을 위해 오랜 시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할 때 크고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섬김과 나눔의 '기적의 10만원 프로젝트' 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세상을 품는 한동
국제기업가정신 훈련프로그램

한동대는 2008년부터 방학마다 국제기업가정신 훈련프로그램(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GET를 실시해왔습니다. 한동대가 UNDP(유엔개발계획)의 도움으로 개발한 GET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자, 대학생, 정부사업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성장기폭제로서의 기업가정신' 을 훈련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9년 여름, 본교에서 22개국의 27명이 모여 처음 시행하였고, 그 후 작년 2월에는 케냐 현지에서 동아프리카 7개국의 80명을 대상으로, 7월에는 몽골에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수, NGO 지도자들 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6월, 김기홍 교수님(GEA), 이용 교수님(경영경제학부)과 함께 19명의 학생들이 한동대의 UNESCO UNITWIN 자매대학인 케냐 리무르 지역의 St. Paul's University에 다녀왔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8일 동안 케냐를 방문하여 기업가 정신, 기업윤리, 비즈니스, 기업법 등의 교육을 하고, 이것이 곧 올바른 의식개혁으로 연결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개발 공헌에 도움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이 끝나고 5일 동안은 케냐 농촌 지역 현지

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는 마을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GET'10을 다녀온 정용택(07, 경영경제학부) 학우의 소감입니다.

푸른 초원과 야생동물들이 떠오르는 아프리카의 케냐. 그곳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GET 프로그램 진행을 돕고, 케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도우며 정신 없는 일주일을 보냈지만, 그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희망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가 케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저와 친구들은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행하였던 배려, 희생, 봉사정신, 그리고 팀워크는 지금까지도 제게 큰 감동이자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케냐 사람들이 더 큰 희망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신 교수님들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던 헌신적인 가르침과 열정은, 케냐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 그것을 넘어 케냐 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풍요가 앞으로 어떻게 꽃 피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GET 프로그램은 한동대의 학부, 대학원, HILS(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한동국제법률대학원)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동대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교복을 입은 한 여고생이 고사장에서 나오면서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면접에서 그동안 준비하여 쌓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우미가 학생을 달래보지만 울음은 쉽게 그쳐지지 않습니다. 수시에 응시하는 학생이 면접을 보고 난 뒤 우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지만 수시도우미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당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여느 때와 달리 채플 앞에는 많은 학우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바로 '2011학년수시 2A 면접 및 구술고사' 가 있는 날입니다. 학생 홍보단인 나누미 학우들이 이제 합격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면접 응시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고사장에서는 수시도우미들이 다과를 준비하고 책상 배열을 맞추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 있

을 과제와 중간고사가 부담될 법도 하건만 이번 수시도우미 모집에는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채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응시생들이 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시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으며 각자의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응시생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고사장 옆 대기실에 도착해 수험표를 가슴에 꽂는 응시생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수시도우미가 음료수와 다과를 가져다 주며 "우리학교 교수님들은 다들 좋으세요. 절대 무섭지 않을 테니 긴장 푸세요" 라며 농담을 던집니다. 하지만 잔뜩 긴장한 응시생들은 어색하게 반응합니다.

이윽고 면접이 시작되고 응시생은 한 명씩 수시도우미와 함께 고사장으로 향합니다.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고사장 앞에 서자 수시도우미가 응시생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응시생도 이내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응시생이 노크하고 고사장으로 들어가자 수시도우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동안 두 손을 모으고 응시생을 응원합니다.

수시도우미들이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을 섬기고 있는 시각, 나누미는 채플에 남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기숙사 생활은 어떤가요?" , "학교가 고립되어 있어 불편하지 않나요?" 마구 쏟아지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나누미 학우들은 조언자이자 말동무가 되어 드립니다.

수시 면접은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던 수시도우미들과 나누미들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응시생의 면접이 끝날 때까지 수시도우미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윽고 마지막 학생이 고사장에서 나오자 도우미들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사장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들이 뿌린 섬김의 씨앗은 2011년도 '11학번 새내기' 라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한동 러브하우스

2010년 11월 13일 이른 아침, 한동대 학생 60여 명은 포항시 흥해읍 양백리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집을 보수해 드림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옮긴 후 벽지를 바르고, 칠이 벗겨진 외벽에는 새로이 페인트 칠을 하고, 구멍이 나고 금이 간 담장은 퍼터로 메웠습니다. 서투른 솜씨지만 학생들의 손길이 많이 닿을수록 집은 제법 완고해져 갔습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밝아지는 모습에 학생들은 더욱 힘을 내 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자 뻘 되는 학생들이 찾아와 집을 보수해주는 모습에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작업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밖으로 옮겼던 가

구들을 모두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니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정성껏 보수한 집들이 올 겨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아리 '해비타트' 회원 19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이 행사는, 40여 명의 지원자 학생들과 함께 한동대에서 실시한 '지역봉사활동 공모 프로그램' 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구를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전답사를 통해 두 가구를 더 추가하여 총 네 가구를 보수해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동대 학생들은 '지역 봉사활동 공모 프로그램' 을 통해서 포항 인근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2011년 상반기 한동대 수상소식

공모전 및 대회명	부문	수상자
2010년도 Core-A 응용경진대회	특허청장상	박기훈 차장혁 장영종
2010 미래디스플레이 아이디어공모전	장려상	이지수 반소량 김성은
2010 한우 문화공모전	입선	조수민 신지혜 김대원
2010 여대생을 위한 IT 기업연계 프로젝트 멘토링 사업	대상	김수경 한화진 백하은

2010.8.1~2011.1.20 신규후원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가경자
강광덕
강동현
강미라
강병덕
강성복
강영호
강예성
강예찬
고경자
고영희
고은경
고재희
고진숙
국윤경
권영미
길준원
김경희
김근우
김기석
김기현
박순천
김기홍
김남현
장수자
김대성
김대식
김대옥
김도원
김민기
김민기
김병훈
김봉석
김성규
김성옥
김성희
김수영
김숙희 (인천)
김숙희 (고양)
김승동
김승평
김아름
김양희
김연옥
김영관
김영란
김영일
김영진
김영환
김영희 (익산)
김영희 (서울)
김예주
김유미
김은영
김의호
김익제
김정인
김주찬
김지민
김진미
김진혁
김헌중
김현동
김현숙
김현주 (안양)
김현주 (부산)
김현철
김희지
김희철
나원상
나은솔
나정한
남금식
남현진
도종의
라채원
문미란
문태균
박경찬
박명수
박민자
박병주
박성규
박성현
박성호
박소연
박소형
박수정
박정란
박정순
박정식
박정언
박정자
박종구
박종성
박준상
박지영
박진숙
박창진
박철은
이수민
박하얀
박현정
박효
반명진
방청록
배선희
배성미
백문화
백승우
백정심
백주흔
백창현
변윤미
삼진기업
서기복
서만기
서영화
서유민
서유진
서정아
서지혜
선진엔
설기수
성순복
손보익
손창민
송애숙
신민아
신은주
신자현
신재봉
신현주
심경봉
심명실
심선영
심순영
심인보
안성애
안세일
안희순
양동수
양명성
엄성옥
염하영
오동환
오상수
오성군
오세옥
오신일
오은희
왕병준
유경희
유기선
유창현
유혜숙
윤상호
윤성빈
윤영근
윤재성
윤재웅
윤현경
윤혜정
이강실
이강희
이경태
이기준
이길재
이대준
이동열
이동희
이명선
이명애
이명희
이문원
이미경
이미례
이미숙
이미헌
이상곤
이석정
이선영
이수나
이수영
이연미
이용현
이웅교
이원택
이유진
이윤덕
이은경
이은실
이은심
이재호
이정은
이종길
이종선
이종식
이종하
이주영
이주은
이준근
이준용
이지희
이진영
이충우
이태선
이현경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혜연
인천불
로교회
임명복
임선애
임은애
임종훈
임지현
장정희
장창현
전명희
정경란
정대휘
정모세
정병원
정성우
정세영
정수정
정용심
정윤
정윤아
정인홍
정재환
정현철
정혜숙
조관희
조명숙
조소영
조순화
조영만
조용채
조은진
송인혜
조이수
조인자
조진영
조현지
진가연
진주형
차은경
최미숙
최선화
최영애
최영자
최인숙
최정희
최향숙
최혜련
편승재
한순미
한은숙
한점순
허명수
홍성구
홍최영
황성식
황소연
황철원
김희상
이웅교
허문희
네오마션(주)
마크버조비
보금자리인테리어(고영미)
부산예일교회
지니어링(주)
선진조선 주식회사
예림학원(류호정)
예수대학교
이엔아이미디어 (이광배)
이티에스글로벌비브이 한국지점
(사)한국어문
Craig G.Smith
David A. Beckett
Stephen Strombeh

후원안내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World Christian Leader를 양성하는 초석이 되며 한동대학교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등록금에 대한 높은 의존율과 미미한 정부보조금으로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한동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선교 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 발전기금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모여 장학금 확충, 교수채용, 학술연구 활동, 교육선교 사업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임으로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

한동대학교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가 후일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새로운 소망 한동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꿈, 그가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의 갈대 한 올 한 올처럼 기도와 후원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00원**

팀워크(TimWork)

교육 선교 프로그램으로,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TimWork는 '디모데 사역' 이란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나 최근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통해 제약이 많은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현지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동대에서 신앙은 물론 학문까지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해당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의 청년 리더양육을 위한 바울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만원

보아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라는 신앙고백으로 혹심한 기근이 있던 타향살이를 하게 된 나오미 앞에 곡식자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 선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아스를 예비하시어 극복을 하시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동의 국제화를 위한 제2의 도약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후원금액 : 1구좌 100만원**

갈대상자 후원가입

+ 우편엽서를 통한 후원 가입

오른쪽 한동대학교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화를 통한 후원가입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통한 후원가입

http://www.handong.edu 후원참여 〉 후원프로그램 〉 갈대상자 인터넷 신청

변경사항 수정 및 종료하실 때

후원자님의 기타 변경 사항 및 여러사정으로 후원을 종료하셔야 될 경우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혜택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공제혜택 받습니다.

기타 기탁방법 안내

현금 기탁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소장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도 발전협력실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전화 : 054-260-1063~65, 팩스 : 054-260-1069,

전자우편 : papyrus@handong.edu

후원자님의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소중히 쓰이게 됩니다.

한동대학교 2012년도 입학사정관제 안내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 특징

- 전체 모집 인원의 80.5% (660명/820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
- G-IMPACT 선발기준을 통해 전형 유형 및 선발 방법을 다양화: 학생의 강점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선발
- 면접 및 구술고사 비중 강화: 전형의 특성에 따라 면접 형식 및 비중을 다양화하여 전형 취지에 맞는 우수 학생들을 선발

대학 교육과 연계된 학생 선발 전략

G – IMPACT	요소의 정의
Global	국제화 경험, 국제적 마인드, 외국어 소통 능력
Integrity	정직과 성실성, 봉사정신, 공동체 정신, 리더쉽 등
Motivation	자기주도성, 지원동기, 진로계획
Potential	난관 극복의 경험, 각종 성취도의 향상도 등
Academic Ability	학업 능력– 고교 내신 성적, 수학 능력시험 성적, 학업 관련 동아리 및 각종 교내 외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
Creativity & Consilience	기존의 문제에 대한 독창적 시각 또는 접근방식, 각기 다른 영역을 연결시키는 융복합 능력 및 도전 정신
Talent	특기 능력– 재능 및 특기 능력 관련 동아리 활동, 교내 외 프로그램 참여 실적, 관련 분야 수상 실적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012학년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입학상담: 054-260-1803~8, 1797
팩스: 054-260-1809
E-Mail: admissions@handong.edu
입학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

www.handong.edu

한동대학교 발전협력팀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전화 : 054-260-1063
팩스 : 054-260-1069
E-mail : paypyrus@handong.edu

미국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